

곡성군, 지역 농업인 역량강화 나섰다

8~10일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
농업단체 34명 곡성농업 고민
지역 로컬푸드 우수사례 공유
신규 특화작물 발굴 사례 논의

곡성군이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을 열어 미래 곡성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지역 농업인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특화작목 재배를 통한 지역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로 미래 농업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본부와 4-H연합회

등 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의 군·읍·면 임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견학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곡성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례 수집과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 현황을 이해하고 애플망고, 올리브 등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기술보급 사례를 공유했고, 현재 시험재배 중인 시험포장도 함께 견학하는 등 미래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다.

올레길 걷기와 민속마을 등을 방문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본부와 4-H연합회 등 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의 군·읍·면 임원 등 34명이 지난 8~10일 제주도에서 '곡성군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을 가졌다.

곡성군 제공

지역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미래 농업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다.

이지숙 곡성군생활개선회 회장은 "곡

성군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2024 회원사 수출교육과 품평회 전남식품수출협회

(주)전남식품수출협회(회장 한문철)는 지난 12일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중흥골드스파리조트 골드동 1층 중연회장에서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장,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백인기 KOTRA광주전남지원단장, 김동관 전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50여개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남 식품수출협회 회원사 수출교육과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이날 김영식 남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귀빈소개와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심천 해외박람회 큐텐·위시플러스 등의 소개와 수출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출제품컨설팅과 업체별 수출예로사항 상담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오신영 aT한국농수산물식품통공사글로벌사업처 담당자는 미국 최신히트상품과 소비유통 트렌트에 대해 분석자료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회원사에서 준비해 온 전남식품 수출 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열어 다양한 고품질제품 등이 미국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매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문철 회장은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해상운임료 상승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다 안보위기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전 회원사는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학교 등 급식소·음식점 대상 담양군, 18일까지 위생 점검

담양군은 여름철 관광객과 군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등 관내 집단급식소 56개소 및 음식점 64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식중독 예방 1:1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원재료 보관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집단급식소 내 보존식 보관의무 여부 △조리 기구 세척 및 살균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개인위생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여름철 주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달걀·생닭 취급 요령과 함께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은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을 중심으로 홍보·교육할 예정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청소년범죄예방 영광지구위원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영광지구위원회(위원장 김윤남)가 지난 10일 영광읍 일대와 법성면 일대에서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과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및 마약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14일 영광지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영광군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영광경찰서,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총 40여명)이 연대하여 청소년 중독성 범죄 근절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기획·운영됐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활동을 캠페인과 병행하여 전개했으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대신지구 일대와 법성면 매표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총 6개 팀으로 나누어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및 고용·출입 금지 등 스티커'를 부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예방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흑찰옥수수 최대 30% 할인 곡성직영쇼피몰, 31일까지

곡성군 온라인 쇼피몰인 '곡성몰'이 31일까지 3주간 '멈출 수 없는 쫄면함, 곡성 흑찰옥수수 최대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은 생옥수수와 냉동 옥수수 두 종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생옥수수는 주머니 들어온 당일 수확해 속껍질을 남긴 채 깔끔하게 손질 후 구매 고객에게 배송한다.

냉동 옥수수는 수확 당일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 삶은 후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해 배송한다. 찜기나 전자레인지로 이용하여 조리하면 갓 쪄낸 듯한 쫄면하고 찰진 흑찰옥수수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곡성군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옥수수 재배에 최적의 환경으로 삼기면과 오산면에서만 155농가, 44ha 규모의 흑찰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 간식으로 흑찰옥수수가 제격이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흑찰옥수수를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영광지구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일 영광읍 법성면 일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마약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영광군 제공

곡성군, 갤러리 107 여름 예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4일까지 청소년·성인 200명
26일부터 8월2일까지 운영

곡성군은 오는 24일까지 갤러리 107 '여름 예술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갤러리 107은 곡성읍 중앙로 10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적 성취감을 느끼고 문화예술 교

육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 예술학교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곡성군 옥과면에 위치한 국악전수관 3층에서 진행하며 여름 방학 동안 곡성 관내 청소년과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예술학교 참가자들은 자개 공예, 엔틱

도자기 만들기, 복이 오는 리스 공예, 바람바람 합죽선 체험,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조형 활동을 유명 작가들과 함께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참가비는 무료로 각 프로그램당 1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와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예술축제팀(061-360-8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화순군, 수열에너지 도입 협약

온실가스 저감 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일 화순군청에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내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순군은 지역상생형 청정 물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순군과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친환경 물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적지 발굴, 사업 제안 등을 했으며 올해 3월 '환경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에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해 주암댐 광역상수도 원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냉동통을 도입할 예정이다.

냉동통은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원룸(28㎡·8평) 1개를 냉·난방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뜻한다.

수열에너지는 물과 대기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 물에너지로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뛰어나 대표적으로 서울롯데월드타워,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 중이고 향후 코엑스 등에 도입 예정

이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내 친환경 수열 에너지를 통한 냉난방 시 기존 냉·난방방식 대비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30% 절감 및 600톤 CO2 탄소배출량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연간 30년산 소나무 1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연중 지속 공급이 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전남도, 화순군민들이 사계절 내내 좀 더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체육·문화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인호한국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부장은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공급사업을 토대로 영·섬유역내 청정 물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